

한번 없앤 규제 뿌리까지 제거한다

정부 규제개혁 관리 철저 … '사전심사청구제' 전면 도입도

관련부서도 폐지 … 다시 살아나는 것 막아

기업 투자 앞서 인·허가 문의땐 사전 답변

한번 없앤 규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아예 규제의 뿌리를 제거한다.

기업이 투자에 앞서 인·허가사항 등을 사전에 문의하면 행정기관이 항후 취할 행정조치를 투명하게 미리 답변하고 공개하는 사전심사청구제가 모든 부처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규제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제안에 대한 포상도 대폭 강화해, 일선기관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하위 규정, 타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 일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제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제안한 개선안이 채택되면 가점을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성과급이나 상을 주는 규제 마일리지제도도 마련한다.

또 해당 제안 채택으로 예산이 절감될 경우 제안자에게 예산상과금을 주며 공기업은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자체규제 개혁 성과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자체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 혹은 소극적 법령해석이 암묵적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국가위임사무, 특히 자체장이 인·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들에 대해 법령해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모든 부처에 전면 도입하고 법령해석과 조치의견 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기업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령해석은 물론이고 앞으로 취할 행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등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활동의 법률리스크도 줄게 된다.

또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답변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기 때문에 규제의 투명성도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농축진흥청 원예연구소 주최로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관에서 국산 나리(백합) 품종평가회가 열려 관람객들이 우수품종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8개 정유사 가격담합 과징금 127억원 부과

작년이후 4차례나 … 총과징금 1,771억 사상 최대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8개 석유화학업체가 가격담합을 했다가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석유화학업체들이 담합 협의로 제재를 받은 것은 작년 이후 4번째로 담합이 대부분의 제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부과받은 과징금은 1천771억원으로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들 업체가 기초 또는 중간 원료로 쓰이는 6개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SK에너지가 48억3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GS칼텍스 28억7천200만원, 삼성토탈 17억6천800만원, 호남석유화학 8억9천800만원, 씨텍 8억4천4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 6억1천900만원, 동부하이텍 4억7천100만원, 삼성종합화학 3억9천5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에너지와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씨텍 등 6개사는

국산 백합 참 예쁘죠

삼성 2만500명·금호아시아나 1,100명 뽑아

고유가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 현대·기아차그룹, LG, SK, 롯데, GS, 현대,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그룹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합뉴스가 22일 하반기 신규채용 잠정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삼성은 올 한해 대졸신입사원 7천500명, 생산직 1만3천명 등 2만500명을 선별 역량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이는 대졸신입 및 경력직을 포함해 각 분야별로 150~200명을, LG이노텍은 발광다이오드(LED) 등 중점 육성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R&D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